

# 백제인의 숨결을 느끼다



사비시대 여행자



삼국시대 백제인의 숨결을

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라

답사 장소 1

국립부여박물관

사비사람들의 지혜와  
예술 세계를 엿본다.

답사장소 2

궁남지

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연못

답사장소 3

정림사지

삼국시대의 절터

답사 장소 4

부소산성

백제의 역사를 품은  
소나무 숲



백제인들의 토기, 불교 예술품, 건축물,  
장식품, 생활품을 엿볼 수 있었다.  
특히, 진흥에서 발견된 백제금동대향로  
로의 동물들과 사람들의 조각은 기억에  
오르네요.



백제금동대향로

답사장소 1

국립부여박물관





궁남지

신라-선화공주와 결혼한 무왕의 서동요 전경이  
있는 곳이다. 일본에 전수해 주었음을 정도로 뛰어  
난 백제 기술을 볼수 있는 곳이다. 연꽃이 활짝 핀  
모습은 보지 못해서 아쉬웠으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 
의 인공연꽃을 본것 만으로 만족한다!

답사장소 2

궁남지



백제 성왕이 부여인 사비성으로 도읍  
을 옮기면서 다시 성으로 에워싸인 사비  
도시의 중심지에 정림사가 세워졌다.  
백제시대 정림사가 5층석탑, 고려시대  
석불좌상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.

답사장소 3

정림사지



정림사지 5층석탑





부소산성

백라강 남쪽 부소산에 신라시대의 도성  
백제 여인들이 몸을 던진 낙화암, 그 원혼을 달래  
기 위해 세우진 고란사 이이름을 들으며 부소산성  
을 걸어보니 백제 여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 
같다.

답사장소 4

부소산성의 낙화암과 고란사



모두에게



압도적 감사

보내요.